

북한 해양수산 리뷰

KMI Monthly

North Korea Maritime Review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북해양협력팀 (02)2105-4950

전문가 컬럼

한반도 긴장과 한·중 협력 과제

주 평(朱鋒) (북경대 교수/국제전략연구센터* 부소장)

2009년 4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 진행된 여러 번의 “위기 확대” 조치는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4월 14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강력히 비난하며 “핵 시설의 재가동,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라는 6자회담의 기존합의 파기 발표와 함께 “6자회담 절대 불참”을 선언했다. 이어 30일, 추가 핵실험 진행 의사를 피력했고, 5월 15일에는 남북한 개성공단 기존 법규 및 계약의 무효화를 선언했다. 현재 북한의 태도가 “돌이킬 수 없는 강경책”인지 “대화의 여지를 남겨 놓은 마지막 카드”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을 격화시켰고, 지난 6년 동안 6자회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위기 확대”의 주요 핵심은 북한 권력 승계

유엔 안보리는 4월 5일부터 8일간의 회의를 통해 대북 <의장성명>을 통과시켰다. 이 <의장성명>은 북한을 우호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UN <결의 1718호>¹⁾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하

여 논쟁의 중심이었던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로 야기된 이번 논쟁의 본질은 북한이 우주개발에 대한 권리의 유무가 아니라 냉전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과 국제적 관심의 대상인 대규모 살인 무기에 대해 여전히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에 대한 토론과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부터 핵 무기까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련의 문제들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태에 대한 염려와 책임을 표명했다. 또한 북한과 상대국 간 유지되고 있는 대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냉전 이후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북한의 외부에 대한 대항은 미국과 일본의 장기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과 일부 국가의 지속적인 대북 무역금지 및 제재 정책 등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북한 역시 모호한 자국의 대외정책, 대외 신뢰의 부족, 습관적인 도발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의 비판 사항에 대해 북한은

* 북경대 국제전략연구센터는 세계 정치, 국제 안보, 국가 전략 등의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1)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 2006년 10월 14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전문가 컬럼

“이는 북한의 핵에너지 개발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반박하면서, 6자회담 거부를 선언했다. 이는 6자회담이 심각한 곤란함에 직면할 것을 의미한다. 6자회담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각국의 대북 “접촉”이 늦어질수록 북한의 “협박” 행위는 더욱 쉽게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이 다각적인 외교 담판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한 이후 북한은 2005년 11월, 2006년 10월과 2009년 4월 등 이미 세차례 6자회담을 거부했었다. 북한의 6자회담 거부 이유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실시와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 <결의 1718호> 통과, 그리고 유엔의 의장성명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발사 비난 때문이었다.

한편, 2009년 4월 5일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로 나타난 새로운 위협은 김정일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련의 위협적인 정책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의 충돌을 가중시키는 동안 김정일 정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북한 내 새로운 권력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일의 측근인 매제 장성택, 조선인민군 참모장 리영호와 정무원총리 김영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기구가 “핵심”조직으로 형성된 점과 자신의 아들을 실질적인 권력 위치에 올려놓은 점으로 알 수 있다. 이로써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 시대” 정권 승계구상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은 건강 상태, 북한 국내 정세의 장악 및 통제에 대해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직면한 국내 정치의 중요한 문제는 “후계자 선택” 혹은 “권력 계승”이 아니라 자신의 견고한 권력 통제 시스템 구축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 식량문제 해결과 공업발전에서 대외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북한에서 김정일의 심각한 건강악화나 외부권력 경쟁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등의 위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봄의 식량공급은 1998년 이후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하 경제” 실행 및 농업 생산을 중시한 근래의 북한 정책들이 북한 식량 공급 개선에 도움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평양은 최근에 수입된 가전제품과 화장품 판매 금지를 포함하여 지하경제에 대해 새로운 엄격한 규제 조치를 실행하였지만, 시장경제체제 성격을 지닌 식량교역에 대해선 여전히 느슨한 정책을 폈다. 북한의 대중 정부 환율 역시 1대 17 수준으로 조정했다. 북한과 중국 간 변경무역 중 식량교역은 이미 상당부분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밀무역의 주요 항목 중 하나가 되었다. 종합하면, 북한 국내 정세는 1994-1998년 시기보다 명백히 개선되었고 북한 국민의식이 점점 외국의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북한이 심각한 “붕괴”에 처해 있다는 근거는 없음을 시사한다.

한중협력 강화, 평양의 새 도전에 공동 대응

북한이 근래 들어 채택한 일련의 도발적 조치들은 남북한 관계를 뒷걸음치게 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 위기감을 조성했으며, 중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2003년 8월 제1차 6자회담 이후, 중국 외교관은 북핵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은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 거부 재선포, 핵 시설 재가동 및 남북한 실무회담 무산 등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른 가장 큰 피해국은 한국과 중국이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북한 정책은 실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를 소중히 여김”은 여전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가 컬럼

정치적 선택이다. 그러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비난과 <결의 1718호>에 동의함에 따라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 상태가 조성됐다. 2009년 4월 25일, 유엔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재위원회는 안보리가 2006년에 통과시킨 <결의 1718호>와 관련된 물자 수출입을 통제할 계획을 내놴다. 그 중에는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신기술”도 포함된다. 이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의 해외 자금의 동결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들 기업과 이미 무역거래를 하였으며, 북경의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 참여 여부가 앞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재가동한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를 지지할 것이고, 대북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북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실패했다는 시각을 가진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권고 할 것이고,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 포기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조는 한반도상태를 안정시키고 평양의 도발정책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상태를 더욱 악화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한국의 다음과 같은 정책에 대해 지지할 것이다.**

첫째, 중국은 긴장감이 감도는 정세에 대해 한국의 대북 대응 전략 채택을 희망하지 않는다. 북한은 김정일 통치 하에 있는 ‘유망(流網 : 갇패) 국가’이다. 이 시기의 북한이 채택한 각종 도발 조치는 위

기 상황의 김정일 독재 정치를 강화하는 목적 이외에 미국을 견제하고, 북미 회담에서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는 북한의 도발에 장단 맞춤 필요 없다. **북한 도발적 행동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은 냉정한 대응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한국의 “PSI” 가입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의 한국 이익 문제이다. 남한은 북한의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협력 “파기” 행위에 대해 마땅히 직접적인 대화와 답판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투자자들과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논쟁의 원칙적 요구를 대화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현재 남한과의 직접대화를 원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얻기 힘든 자국의 외화 수익인 개성공단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회담을 제의하여야 하며, 이는 동북아 지역 정책 중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북한의 고립과 타격을 실시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과 중국은 기타 상대국과 함께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결의를 다져야 한다. 앞으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 및 미래 한반도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양국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양국은 미래 “포스트 김정일 시대” 대응에 있어서 오해를 줄이고, 북한이 6자회담 중 각국 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번역·정리 : 박문진, 허소영 연구원)

“남한은 북한의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협력 ‘파기’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와 답판을 요구해야 한다.”

이슈분석

제12기 최고인민회의와 장성택의 부상

홍 성 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4일 후인 4월 9일, 예고되었던 제12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998년 개정된 북한 헌법을 11년만에 개정했다. 1998년 헌법개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정일이 선출된 이후 북한 체제는 10년이 경과되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김정일 제3기 체제가 공식출범하게 됐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와 김정일 제3기 체제

김정일의 제3기 체제는 최고 통치자인 김정일의 예상치 못했던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후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외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보면 김정일이 북한주민에게 누누이 강조하여 왔던 ‘2012년 강성대국완성’ 목표를 불과 3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다. 강성대국은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으로 지쳐 버린 북한주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제시했던 북한·정권의 “화두”이다. 더욱이 김정일 통치기간이 10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영도력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체제내부의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헌법 11년만에 개정, 국방위원회 개편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을 보면,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를 동시에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며 국방위원회의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우선 인원을 5명 추가하여 13명으로

확대해 구성을 다양화했다. 또한 김정일의 통치가 어려운 상황이 또다시 재연될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대응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상설적인 위기관리 기능을 구비하도록 국방위원회에 역할을 부여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부상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국방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롭게 부각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장성택은 국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해방 이후인 1946년에 출생한, 가장 젊은 나이의 김정일 측근인사다. 측근이라는 의미는 인척 관계라는 단순 의미를 넘어서 북한 내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좌천과 복귀를 수차례 걸쳐 반복한 다양한 경력을 지닌 보기드문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안정과 함께 경제부흥을 위한 체제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김정일의 입장에서 통치자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장성택으로 점쳐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한 실상과 경제성장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최고위급 인물로서 친중국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더욱 흥미를 끄는 내용은 “김경희”와 얽힌 이야기이다.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여동생이며 절대통치권자 김일성의 딸인 김경희는 역척스러운 카리스마를 지녔으며, 자신의 집념을 내부로 갈무리하는 여장부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의 성격은 세 아들로부터의 감정표현도 용납치 않는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경희의 말은 나의 말과 같다’고 할 정도로 누이

이슈분석

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또한 김정희는 북한체제에서는 유일하게 오빠인 김정일에게 감정적 연사를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한다. 장성택은 김정희의 남편이며, 김정일과 처남·매부 관계로, 김일성의 사위이다. 황장엽은 이 같은 당시의 많은 일화를 전달하고 있다.

인맥·안목·경험 '3박자' 두루 갖춰

장성택의 맏형인 장성엽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김정일의 후계수업을 담당한 개인교수이며, 둘째형 장성우는 평양 방위를 책임지는 3군단장으로 차수(우리의 대장과 원수 사이)의 계급이다. 셋째형 장성길은 인민군 중장으로 정치위원의 경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군부내에 상당수준의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장성택은 과거 당 조직지도부의 책임자로서 당간부의 인사권과 사법, 검찰,公安기관 등 핵심 기구를 장악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외무성 과장으로 재임시 외화벌이도 많이 했으며, 모스크바 유학을 했으므로 국제정세에도 남다른 안목과 외교인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성택이 남한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다. 당시 정상회담 고별만찬에서 당시 손길승 SK 회장이 옆자리에 앉은 장성택에게 “투자보장 협정을 비롯한 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장성택은 그 자리에서 “위원장에게 직접 건의하라”며 만찬장에서 손길승 회장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데리고 가서 설명토록 함으로써 파워와 신임도를 현장에서 실감케 했다는 일화도 있다.

2002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박남기 북측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북한 경제시찰단 18명이 8박 9일 일정으로 고려항공 전세기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을 통해 남한을 방문했다. 당시에 김정일이 장성택을 북측 경제시찰단에 포함시켜 보냈다. 이는 자신의 심복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케 하여 남한과 해외 경제상황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북측 시찰단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북남 관계를 더욱 더 진전시키겠다”는 내용의 도착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경제시찰단이 아니라 고찰단이라고 하면서 “시찰은 대충 구경하는 것이고, 고찰은 생각을 하면서 진지하게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들은 남한의 자본주의 경영방식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 전력과 제철, 백화점 매장 운영방식,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 신발, 섬유, 식품가공 등 경공업 분야까지 둘러보았다. 특히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신의주 특구와 개성공단, 금강산 등에 대한 투자 문제에 대해 삼성측에게 운을 떼기도 했다.

당시 시찰단은 남쪽 일정을 마치고,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타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지대를 둘러보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2006년 김정일의 중국 비공식방문에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장성택은 수행원으로서 중국의 개혁과 개발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최근 김정일의 건강 이상 시기에 실제적인 위임 통치조직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함에 있어 장성택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북한 해양수산 뉴스분석

■ 북한 청진과 중국 투먼간 철도, 5월 개통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발행되는 「동아경무신문(東亞經貿新聞)」의 기사를 인용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와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를 잇는 철도가 5월 하순 개통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투먼시 정부와 투먼강 국제여행사가 함경북도 관광국, 청진시 철도국과 북한의 남양과 청진, 칠보산을 투먼과 잇는 열차의 운행에 관한 협정을 청진에서 체결했다고 전했다.

5월 중하순에 이 철도 노선의 시험운행을 위한 개통식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중국인들이 기차를 타고 북한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투먼강 국제여행사와 청진시 철도국은 협정을 통해 양국의 열차 규격과 철도 노선의 보수, 중국 여행객의 식사 및 편의제공, 운행시간, 운행 거리 등의 구체적인 합의도 이뤄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한결 쉬워져 북한의 관광수입도 증가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진희 팀장(남북해양협력팀)

■ 中 어선, 연평도 NLL 근해서 조업 개시

「연합뉴스」(4.20)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췄던 중국 어선들이 북귀해 조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와 군당국은 지난 2월 중국 어선들이 갑자기 사라지자 북한군의 서해상 ‘군사적 도발’의 징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간 서해 일원의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해왔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중국 어선이 연평도 해상에 되돌아왔다고 해서 서해상의 긴장상태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북한은 과거에도 중국 어선이 조업 중인 상태에서 두 차례 서해 근처에서 교

전을 일으킨 바 있다.”고 언급했다. 군당국은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NLL 근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핑계로 NLL을 월선,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NLL 해상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5년 단위로 NLL 해상에서 조업을 허락하는 어업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9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선희 책임연구원(남북해양협력팀)

■ 평양 봄철 국제상품 전람회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인용한 「연합통신」(5.16)에 따르면 11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제12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열렸다. 전람회에는 북한의 60개 회사와 중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폴란드 등 해외 17개국에서 200여개 회사와 단체들이 참여해 모두 6만5천여점의 상품을 전시했으며, ‘북중친선의 해’인 올해 전람회 참가 중국 기업만 100개를 넘어 따로 중국관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업체 중에서 처음 전람회에 참가한 수채봉수출수산합작회사는 동해산 수산물 가공제품들을 출품해 호평을 받았으며 “제품거래를 요구하는 회사들의 상담, 면담 요청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고 동기명사장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라선시에 위치한 이 회사는 동해 라진만 수역의 깨끗한 생태환경에서 자란 성게, 각종 조개류, 도미, 문어 등으로 가공품을 만들어 생산·판매하는데 이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에 각종 수산물 가공품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의 가공품은 이번 전람회에서 “맛이 좋고 가공제품의 질적 수준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 북한내 여러 호텔과 계약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장거리 로켓 발사, 6자회담 탈퇴와 추가 핵실험을 언급한 것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는 관계없이 북-중 간 경제와 무역 교류가 활발하게 이

북한 해양수산 뉴스분석

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등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해석된다.

엄선희 책임연구원(남북해양협력팀)

■ 불 켜진 원산항

4월 22일 자 「로동신문」은 홍콩의 야경을 연상시키는 휘황하고 아름다운 흑백 야경 사진과 함께 ‘위대한 사랑 길이 전하라, 항구문화 도시의 밝은 불빛 이어!’라는 제하로, 북한 원산항의 발전상을 다룬 장문의 특집 기사를 2면에 걸쳐 실었다.

이 원산항 특집 기사는 북한의 국제항인 원산시의 전력 사정이 야간에도 원산항 고층 건물들을 환하게 밝힐 만큼 개선됐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청년발전소의 본격 가동에 즈음하여 마련된 이벤트로 해석된다.

강원도 고미탄천(법동군 대화봉에서 발원, 판교군 룡당리에서 끝남)을 막아 건설한 원산청년발전소는 2002년 11월 착공되어 지난 1월 완공됐다. 김정일 위원장은 준공에 즈음해 이 발전소를 다녀갔다. 또 이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당시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비서는, 발전소 준공에 대한 공로로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로부터 ‘노력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

「로동신문」의 특집 기사는 “물자랑 밖에 할 것이 없던 ‘물강원도’가 이제는 ‘강성도’라는 이름 그대로 강성 부흥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가지었다”며, 원산청년발전소의 준공 의미를 자찬했지만, 이 발전소의 산업적 의미는 회의적이다. 발전소가 산업적으로 의미 있으려면 전력량 못지않게 고른 전압 등 전력의 질이 중요한데, 북한 당국에 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는, 리봉철(노동당 강원도위 책임비서), 장성택(노동당 중앙위), 리재일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현철해(조선인민군 대장), 리명수(조선인민군 대장)가 동행했다.

박성준 연구원(남북해양협력팀)

■ 대동강에 6개 발전소 운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최근호(4·19)의 보도를 인용한 조선일보(4.24)에 따르면, 북한의 대동강에는 모두 6개의 발전소가 건설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발전소의 총 출력은 26만9천kW라고 한다.

「로동신문」은 평안남도 대동강에는 상류지역에 최근 완공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한 것으로 알려진 영원발전소의 소개와 함께 대동강에는 대동강발전소 등 2개의 언제(댐)발전소와 미림, 봉화, 성천, 순창 등 4개의 갑문발전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원발전소는 출력이 4만5천kW인 발전기 2대를 설치, 9만kW의 출력을 보유했으며 대동강발전소 출력은 13만5천kW이고 4개의 갑문발전소는 미림(1980.10 완공) 2만4천kW, 봉화(1983.10) 1만kW, 성천(1987.3)과 순천(1986.10)은 각각 5천kW이라고 소개했다.

허소영 연구원(남북해양협력팀)

■ 청해부대, 해적에 쫓기던 북한 선박 구조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지난 4월 5일) 후 남북한 간에는 PSI 참여 등의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는 등 긴장이 이어졌지만, 멀리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남한의 해군이 해적에 쫓기던 북한 선박을 구조해 작지만 의미 있는 남북 협력이 이뤄졌다.

지난 5월 6일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은 해적 소탕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견된 남한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쫓기던 북한 화물선 다박솔호(6천399톤급)를 긴급 구조했던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뉴스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통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지난 5월 4

북한 해양수산 뉴스분석

일 오전 11시 40분쯤(한국 시각) 아덴항 인근 국제 권고 통항로상을 감시·정찰 중, 인근 해상에서 해적에 쫓기던 북한 다박솔호의 긴급 구조 요청을 받고 링스헬기를 출동시켰다. 이 헬기는 30분 가량을 비행해 북한 선박에 접근하고 있던 해적선에 대해 위협 기동을 실시한 끝에, 같은 날 12시30분께 해적선이 항로를 변경해 도주케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조에 나선 한국 해군은 헬기가 이동하는 30분 내내 문제의 북한 상선과 교신했으며(처음에는 영어, 나중에는 한국어), 헬기가 본격 기동에 들어갈 무렵, ‘해적선은 북한 상선에 대해 약 3km까지 근접해, 사다리와 고속보트를 준비하고 있어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 또 이 보도는, 해적이 물러난 뒤 북한 상선은 상선 공통망을 이용해 한국 청해부대측에 거듭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참 관계자의 입을 빌어 전했다.

박성준 연구원(남북해양협력팀)

■ 北수산당국 “양어생산 2배 증대 목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인용하여 보도한 연합통신(1월 20일)에 따르면, 북한 수산성의 한영일 부국장은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신년 공동사설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주력”한다는 “양어 중시” 정책을 밝히며 올해 “양어 생산량을 2배”로 목표를 세웠다.

북한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9월 양어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상설 조직으로 ‘조선양어협회’를 발족시켰다. 이 협회는 국가과학원 양어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원산과 남포의 수산대학 교수와 연구원, 평양시 양어관리국을 비롯한 각 도의 양어국,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양어 전문가들고 구성됐으며, 해외동포도 가입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협회 회장이기도 한 한영일 부국장은 “양어발전을 위해 국내의 모든 단위와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한편 외국의 단체들과의

과학기술 교류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식량부족 해결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과학기술 교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일례로서 북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엄선희 책임연구원(남북해양협력팀)

■ 김정일 3기 체제, 해양수산 포스트는 그대로

북한 「로동신문」은 지난 4월 10일 자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의 결과와 함께 국방위원회 등 북한 주요 국가 기구의 구성 및 인사 결과도 발표했다. 국방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1일 위원장에 재추대된 김정일 위원장의 재선출 외에, 국방위원회의 확대 및 그의 매제인 장성택(노동당 행정부장)의 국방위원회 진입이 큰 관심을 모았다.

「로동신문」은 이와 아울러, 내각 성원의 임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리에는 김영일이 유임되었으며, 부총리 중 1인 로두철은 이번 인사에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해 위상이 강화됐다.

그러나 해양수산과 관련한 내각의 주요 포스트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로동신문」에 발표된 해양수산 관련 주요 포스트의 간략한 인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육해운상에는 청진조선소 기사장 출신으로, 2007년 육해운상에 임명된 라동희가 유임됐다. 그는 1987년 12월, 북-소련 해상선박 협조계획서 조인식 참석한 바 있다. 철도상에는 지난 2008년 현재의 직에 올랐으며, 라진-하산 철도 및 라진항 개선 착공식에 참석한 바 있는 전길수가 유임됐다.

수산상에는 함남 먼바다어업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출신인 박태원이 역시 유임됐다. 국토환경보호상에는 2006년부터 현직을 맡은 박송남이 유임됐다. 그는 지난 2007년 12월 제1차 서해평화협력추진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박성준 연구원(남북해양협력팀)



북한의 수산정책 관리체제



엄 선 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북한의 수산정책은 수산업을 식량 공급과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장려하며, 이를 위해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 수산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난과 더불어 수산물 생산도 급감함에 따라 양식어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양어사업을 집중 발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수산과학연구소 산하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양식어종 개발과 보급 등에 노력을 집중함에 따라 최근 들어 양어사업은 다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도 상당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산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북한의 수산업 관리 체계는 행정조직인 수산부 산하에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기본생산단위로 하고 있다.¹⁾ 수산행정체제는 행정 계통조직상으로 보면 「정무원 → 수산위원회 → 수산부 → 도수산물관리국 → 국영수산사업소」로 연결되는 계선조직과 「정무원 → 수산위원회 → 협동수산지도총국 → 도 협동수산경영위원회 → 시·군 수산협동조합이사회 → 수산협동조합」으로 연결되는 방계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수산행정 최고기관은 내각 산하 수산위원회라 할 수 있고 그 집행기관은 수산부와 협동수산지도총국의 두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집행은 지도총국을 축으로 수산업 활동을 전개해 가는 관

리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부는 수산부문의 최고행정기구로서 3개국(국가수산업국, 협력국, 내수면어업국)과 20개 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 수산관리부는 지역수산업을 관리한다. 연구기관은 수산과학연구원 산하의 8개 연구기관이 있으며, 수산물생산을 통한 식량 확보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산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한편, 북한에서의 어업생산주체는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이고, 개별어업자는 독자성이 없는 두 기관의 작업반원으로 우리의 임금노동자의 지위에 불과하다.³⁾ 한 개의 국영수산사업소는 보통 500~3,0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규모 별로 1급에서 4급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진, 김책, 원산, 해주, 남포, 어대진 등지의 수산사업소는 1급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그 밖의 지역 수산사업소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2~4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수산협동조합은 전국적으로 284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남한에 비하여 북한의 어업세력이 적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직의 수가 남한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을 보면, 북한은 협동조직의 업무지역을 매우 작게 구분하여 협동조직이 직접적으로 어업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단위의 수산협동관리위원회장은 수산업협동조합 대표들의 선거로 구성되며, 수산지도위원 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을 장악하여 협동농장, 수산작업반, 수산작업반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자재보강, 어선

1) 80년대 초 수산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의 비율은 7 : 3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8:2 정도로 국영수산사업소의 생산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어획량의 83.2%를 동해안에서 생산하였으며, 이 중 국영수산부문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김운근, 북한의 농업 및 수산업에 관한 실제적 분석 2008.1

3) 합영회사도 수산업 생산단위이며, 군의 식량자급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군도 수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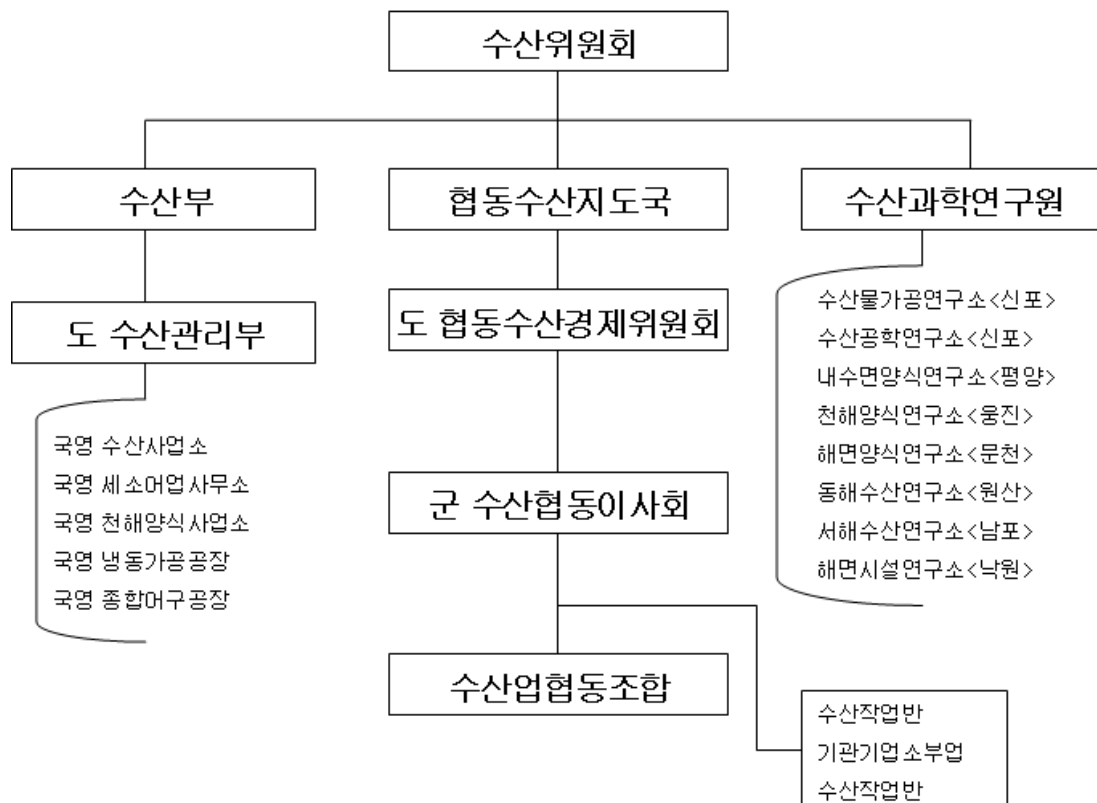
북한 해양수산 어제와 오늘

수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수산업 분야의 기본법 체계는 i) 어업에관한규정(1949), ii) 양식업에 대한 내각과 중앙상무위원회의 공동결정(1958), iii) 수산기업소 규정(1947), iv) 수산제품검사에관한규정(1940)의 4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최고 권력자와 노동당의 강령과 교시 등이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초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들은 명령형식을 통해 수시로 실천방안들이 수립되기도 한다.⁴⁾ 1995년 1월에 최고인민위원회가

수산업 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수산업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97년에는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 지지 않고 있다. 최근 수산부는 금어구(禁漁區)와 금어기(禁漁期)의 설정, 망목의 크기와 어법 의 규제, 해양오염의 방지, 수산자원의 번식을 위한 배양장 건설 등에 관한 다수의 부령(部令)을 제정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1999년 3월에는 양식업 관계규정을 보완한 양어법이 제정되는 등 북한의 수산업 관리에 관한 법 체계가 최근에 혁신적으로 정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북한의 수산 행정조직



자료 : 김운근, 북한경제논총 13호, 북한의 농업 및 수산업에 관한 실제적 분석 2008.1

4) 김현용 외, 남북한 수산협력사업의 중장기 추진방안, 2006.12.

북한 해양수산 주요통계

■ 해양환경 관련 국제 협약 비준 현황 : 남북한 비교

(2006년 8월 기준)

국가	구분	유엔 해양법 협약	세계기후 변화협약	생물 다양성	람사	야생 동식물 거래	이동성야 생동식물	세계 유산	포경 금지	바젤 협약	GPA**	바이오 안전 의정서
		1982	1992	1992	1971	1973	1979	1972	1946	1989	1995	2000
브 루 나 이		96	-	-	-	90	-	-	-	02	-	-
캄 보 디 아		-	95	95	99	97	-	91	06	01	참가	03
중 국		96	93	93	92	81	-	85	80	91	참가	05
북 한		-	94	94	-	-	-	98	-	-	-	03
인 도 네 시 아		86	94	94	92	78	-	89	-	93	참가	04
일 본		96	93	93	80	80	-	92	51	93	참가	03
라 오 스		98	95	96	-	04	-	87	-	-	-	04
말 레 이 시 아		96	94	94	95	77	-	88	-	93	참가	03
미 안 마		96	94	94	05	97	-	94	-	-	-	-
필 리 핀		84	94	93	94	81	94	85	탈퇴	93	참가	-
한 국		96	93	94	97	93	-	88	78	94	참가	-
싱 가 포 르		94	97	95	-	86	-	-	-	96	-	-
태 국		-	94	04	98	83	-	87	-	97	참가	05
베 트 남		94	94	94	89	94	-	87	-	95	-	04

* 국가별 각 네모칸 숫자는 비준 연도.

** GPA : Global Program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자료 : Chua Thia-Eng et. al., *Securing the Oceans*, p. 603을 재가공한 것임.

- 우리나라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 협약을 대부분 비준하거나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물 다양성’이란, 생물다양성협약(CBD)을 말하는데, 1994년 남북한이 나란히 이 조약을 비준했다.
- ‘야생동식물거래’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말한다. ‘이동성야생동식물’은 이동성야생동식물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조류와 해양 포유류가 주요 대상이다.
- ‘포경금지’는 포경규제국제협약(ICRW)으로서 북한은 아직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 1989년 제정된 바젤협약은 독성 폐기물의 국제 운반과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핵폐기물이나 방사능 물질이 주요 대상이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옛 소련에 의한 핵 폐기물의 동해 투기 사실이 폭로되면서 큰 관심을 모은 이후, 해양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에 북한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 해양수산 주요통계

북한의 환경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북한	동아시아태평양	저소득국가
인구(전체, 백만)	23.6	1884.3	1241.2
도시 인구 비율(%)	61.6	41.5	30.8
GDP(\$, 10억)	--	3055.4	600.2
1인당 GNI(\$)	--	1629	461
토지 면적(km ²)	120	15871	212
경작지 면적(전체 토지 중 %)	25.3	50.8	38.8
관개 농지 비율(전체 수확농지 중 %)	50.3	--	18.6
삼림 면적(%)	51.4	28.4	24.7
국가 보호구역 면적(전체 토지 중 %)	2.6	12.1	10.8
조류 종(전체)	369	--	--
위협 조류 종	22	--	--
에너지 사용(1인당 유류 소비량, kg)	898	1182	481
에너지 수입(전체 에너지사용 중%)	4.7	0.1	-28.5
전력 소비량(1인당 kwh)	817	1492	305
CO ₂ 배출량(t)	3.4	3.3	0.6

자료 : 2008 The World Bank Group

북한의 위기 및 희귀동물 : 물고기류 (Red Data Book of DPRK : PISCES)

- 북한은 유네스코 요청에 따라 2002년에 “우리나라 위기 및 희귀동물(동물편) Red Data Book of DPRK (Animal)”을 발간했는데 북한내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야생동물에 관한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북한명	학명(북한)	남한명	분포 및 상태
철갑상어	<i>Acipenser mikadoi</i>	철갑상어	철갑상어는 원산, 신포, 홍원, 나선, 두만강 하구 등 바다연안과 큰강 하구에서 번식을 하는 종으로 그 자원이 적은 희귀종
칼철갑상어	<i>Acipenser dabryanus</i>	칼상어	압록강 하구 삼교전, 대동강 하류 등에 드물게 분포하는 희귀종. 세계적으로 중국의 연안과 황하, 장강 하류에 분포한다.
열목어	<i>Brachymystax lenok</i>	열목어	낙동강 상류에서의 서해, 동해 비탈면 수계의 큰 상류에서 분포하는 희귀종
강우레기	<i>Coregonus ussuriensis</i>	?	북방계 물고기로 압록강수계의 서북부로 흐르는 장진강수역에 분포되어 있는 희귀종으로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우수리강, 아무르수역, 사할린의 서남부 수역, 중국의 송화강 및 홍개호 등에 분포한다.
정장어	<i>Hucho ishikawai</i>	자치	북방계통의 어종으로 압록강의 큰 지류들인 장자강,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수역, 풍수호 등에 드물게 분포하는 희귀 특산종이다. 함경남도 장진군 장진정장어 살란장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마양송어	<i>Oncorhynchus masou mayangensis</i>	?	송어가 두만강으로 올라오는 특별보호 대상 물고기이다. 성천수상류의 마양저수지, 서두수하류의 원봉저수지, 연면수 상류의 신양저수지에 분포한다. 특히 함경북도 무산군 마양송어 살란장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
사루기	<i>Thymallus arcticus</i>	사루기	특별보호대상종으로 압록강 상류와 그 지류인 자성강,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삼수천, 운송강, 가림천 등에 분포하며 해발 1,000m 이상까지 분포한다. 특히 양강도 김형직군 남사구 일대의 사루기분포서식지는 보호받고 있다.

북한 해양수산 주요통계

■ 북한 주요 항만의 물류시설

구분	접안 능력 (만톤)	최대 수심 (m)	부두 연장 (m)	동시접안 척수 (1천톤급 이상)	주요장비	주요화물
청진	1.5	12	2,695	18	30톤급 해상크레인 3기 10톤급 다목적 크레인 8기 컨베이어 벨트	석탄, 철광석, 곡물, 일반화물, 컨테이너, 어선
홍남	1.5	6.7~13	2,061	9	40톤급 다목적 크레인	일반화물
나진	2	11	4,000	40	다목적 크레인 5~15톤급	
원산	1	6.1~7.9	470	3	24톤급, 35톤급 다목적 크레인 각 1기 20톤급, 30톤급 해상크레인 각 1기	어선, 유조선 군항으로도 이용
남포	2	9.6	2,200	10	15톤급 해상크레인 1기 10톤급 다목적 크레인 1기	일반화물 및 산화물(석탄)
	5	13	200	1	다목적 크레인 5톤급 1기	컨테이너
해주	2	7~12	1,305	4	15톤급 해상크레인 1기 10톤급 다목적 크레인 컨베이어벨트	시멘트
선봉	20	23	456		유류하역장비	유류
(웅기항)	(0.5)	7.3	(760)	(5)		(대두유, 목재, 면, 섬유)

자료 : 1) Lloyd's of London Press, *Ports of the World* 2008,
2) Lloyd's Register-Fairplay, *Ports & Terminals Guide 2009-2010*.

북한 해양수산 주요통계

■ 남북한 수산물 교역 실적

▶ 반입(Import)

(단위 : Kg, 천달러, %)

품 목 (Items)	2008년		2009.3월		2009.1~3월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수산물	63,692,174	137,059	7,264,359	9,976	20,925,109	32,864	-8.3
명태	-	-	-	-	506	2	0.0
넙치	31,780	273	50	-	2,080	17	-78.9
대구	17,570	19	9,956	15	18,284	44	908.1
뱀장어	1,000	12	-	-	-	-	-
기타 어류	482,275	1,172	210	1	30,961	71	-81.8
새우	3,108,087	18,628	74,600	537	555,974	3,548	2.5
꽃게	11,033	46	-	-	-	-	-100.0
기타 게	775,732	3,925	91,705	572	247,518	1,667	60.8
오징어	-	-	-	-	-	-	-
문어	1,907,792	6,956	160,464	338	751,884	2,608	48.5
낙지	146,444	361	-	-	4,700	10	-90.1
굴	204,736	377	18,300	26	94,322	142	59.7
피조개	749,975	2,038	86,218	251	309,280	895	-16.1
기타 조개	34,757,203	41,953	4,694,318	5,201	12,858,806	14,471	-24.7
기타 연체동물	12,572,761	15,465	1,735,206	1,793	4,526,134	4,775	6.8
돛	13,921	237	-	-	1,775	39	0.0
미역	828,712	717	138,899	121	248,251	204	0.0
한천	-	-	-	-	-	-	-
기타 해조류	10,400	16	-	-	-	-	-
어육	11,895	36	-	-	-	-	-100.0
기타 수산물통조림	59,898	216	-	-	22,992	79	0.0
새우젓	-	-	-	-	-	-	-
기타 염장수산물	-	-	-	-	30,550	92	0.0
건조수산물	1,949,488	18,638	29,634	254	33,891	274	-64.7
기타 수산가공품	5,188,004	21,378	176,841	728	722,365	3,121	-1.5
수산부산물	13,500	81	-	-	-	-	-
기타 수산물	849,969	4,516	47,958	138	464,836	805	433.7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09년 3월호

북한 해양수산물 주요통계

▶ 반출(Export)

(단위 : Kg, 천달러, %)

품 목 (Items)	2008년		2009.3월		2009.1~3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중량 (Weight)	금액 (Value)	
수산물	2,619,158	4,686	392,250	216	769,720	683	-21.6
넙치	2,500	25	-	-	-	-	-
가자미	-	-	-	-	-	-	-
대구	1,399	10	-	-	-	-	-100.0
기타 어류	28,346	61	-	-	-	-	-100.0
새우	18,064	132	-	-	-	-	-100.0
기타 계	1,389	16	-	-	468	6	0.0
오징어	745	4	-	-	-	-	-100.0
문어	82,850	558	-	-	-	-	-100.0
낙지	40,800	56	-	-	-	-	-100.0
굴	-	-	-	-	-	-	-
기타 조개	155,340	273	5,520	4	15,359	21	4,284.5
기타 연체동물	31,658	64	-	-	-	-	-100.0
김	5,283	47	-	-	26	-	-99.3
톳	25,267	279	-	-	-	-	-
미역	1,555,722	879	379,102	190	683,172	339	14,024.9
기타 해조류	2,410	107	1,208	13	1,209	13	-65.8
어육	12,528	5	-	-	-	-	-100.0
어류통조림	20	-	-	-	-	-	-100.0
기타 수산물통조림	975	5	-	-	-	-	-100.0
건조수산물	8,280	41	-	-	13,880	103	852.7
기타 수산가공품	591,931	1,948	6,420	9	55,606	202	-70.8
수산부산물	12,500	76	-	-	-	-	-
기타 수산물	41,152	101	-	-	-	-	-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09년 3월호